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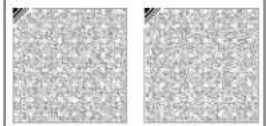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10월 279호

(02)796-4280 www.kapppd.or.kr

**2** 시선8616  
故 장기철 회장...  
"한국 장애인들에게 꿈을 심다"



**3** 뉴스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대구협회 우승



**5** 뉴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허성의 씨 전체대상



**16**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 개최  
장애인 보조공학기술 열전



## 지장협 30주년 기념 2차 토론회

# 지장협에 대한 장애인계의 평가와 기대 쏟아져...

## 장충련, 장충, 복지부, 장애인고용분야 관계자들 지장협에 대한 의견 제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장애인단체의 정체성과 역할정립, 그리고 비전'이란 주제로 10월 1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장협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분야 등 장애계 전반의 전현직 관계자가 참석해 지장협의 지난 30년을 고찰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며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본산으로 장애인 인재의 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를 이뤄냈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30년간 수많은 일을 했고 사회에서 장애인 계층을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제도나 사회적 환경에서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패널 토론은 이성규 서울



▲ '장애인단체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 그리고 비전'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선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권기성 장애인고용공단 전 고용촉진이사 등이 참여해 지장협에 대한 30년의 회고 및 고찰 그리고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 중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 운동을 발전시킨 성과에 동의하면서, '정치

운동'의 전면에 나서기를 제안했다. 지장협은 30년간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회회정치대학을 설립했고, 정치DNA를 장애대중에게 이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 대표는 이를 부활시켜 사회 변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동범 사무총장은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운동을 이끌었으며, 시설에서 재가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주도한 곳 또한 지장협"이라

고 그간의 공적을 평가했다. 더불어 "지장협이 바뀌면 대한민국 장애인 역사가 바뀐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장애인단체 통합에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대안운동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강인철 과장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내년 부터는 장애인인권기관이 설치된다"며 "장애인거주시설 실태 조사는 물론 장애인학대신고기간을 정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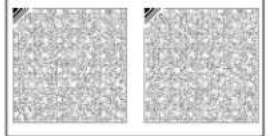
학대를 신고접수 받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때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장협의 장애인권운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기성 전 이사는 "지장협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유지하되 포용적인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기를 바란다"며, "인간소외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당사자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장협이 지난 30년간 장애인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거는 기대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며,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변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향후 지장협은 11월 11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상국 인권상 시상,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철 회장

## “한국 장애인들에게 꿈을 심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본부 염민호 본부장



▲(故) 상곡 장기철 회장.

고(故) 상곡 장기철 회장은 한국 장애계의 큰 별이었다.

지난 2005년 9월6일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기까지 26년간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위해 이룬 고인의 업적은 실로 지대하다. 그분의 큰 결단이 남긴 긴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 고인을 회상하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태동하던 지난 30여 년 전 한국의 사회복지 체계는 밀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복지에 더 말할 수 없이 열악했고 그 개념조차 생경했다. 우리사회 풍토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다. 오히려 장애인을 회화화하여 웃고 즐기는 놀이의 한 대목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장애인은 천시되고 주요 무대에서 열외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인식으로 시혜(施惠)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외곽에 있는 존재였고 주목받을 수 없는 비주류였다. 이때까지 우리사회는 심신의 장애라는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인격과 존중 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이면서도 차별 받는 그 현실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장애계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작은 몸짓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길을 외면했다. 관심을 표명하거나 담론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황량하고 거친 땅위에 메마른 호외리바람이 흩날리며 스쳐가는 듯 허락하고도 각박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어진 현실에서 안주하려는 체면과 포기의 삶이었다. 가슴 속에는 늘 울분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음으로 인하여 구태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으리라.

이 때 몇몇 선각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쳤다. “꼭같

은 육신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인데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할 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편견을 갖지 않는 대등한 눈높이에서 인간의 존엄과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함께 공유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대등한 기회와 조건에서 인간의 가치를 함께 지키고 꿈을 실현하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작은 몸짓이 마침내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이 흘린 눈물이 마침내 큰 강을 이루여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선각자들의 중심에 바로 장기철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세력화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전국을 헤집고 다녔다. 만나는 장애인을 설득하며 회원으로 끌어들이면서 밀바닥부터 조직을 만들어나갔다.

이 당시에 있었던 장기철 회장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번은 지방을 순회하던 중 한적한 시골길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나 멈추어 섰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작은 시골길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하룻밤을 보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역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추운 겨울날 불편한 몸으로 60리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틀날 늦게 도착한 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장 회장의 삶속에는 장애인복지운동을 이끌면서 드러나는 분명한 이념과 철학이 있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주의주장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용어조차도 낯설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였다. 장기철 회장의 가슴에는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없다”는 철저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증진법이나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그 핵심가치가 장 회장의 지도력에서부터 출발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힘을 결집하는 주도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한국장애인복지에 끼친 영향은 실로 폭넓고 다양하다. 항공료 50%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관제도 신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장애인수당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에 공헌했다. 장애인의회정치대회를 개설하고 그의 생전에 각종 선거에서 70여명 이상의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도 앞장섰다.

또한 장기철 회장은 국제적인 장애인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아·태장애인 국제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세계적으로 천명했다. 또 2002세계장애인 EXPO를 개최했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환태평양경제기초선수권대회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평소 책과 신문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장 회장은 세월의 흔적에 역행하는 청년의 열정과 헌신적인 사고의 소

유자였다. 강인한 신념만큼이나 타고난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다. 자신이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사람들을 만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족에 의지한 채 사람들을 설득하며 지지를 이끌어 냈다.

장애인과 함께 해 온 26년 세월, 그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자청했다. 장기철 회장은 ‘오로지 장애인복지’를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중한 질환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를 걱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한치의 늦춤도 없었다. 지칠 줄 모르던 장기철 회장의 열정과 업적은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흘러 비로소 현재를 바라본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弱者) 또는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눈에 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이들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배려도 점차 선진화되어가고 있다. 법규나 정책적인 배려도 구비되고 개선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규범이 세워지기까지 투쟁하고 저항했던 장애계의 지나간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장애인만의 복지를 뛰어넘어 우리사회에서 외면 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결과를 가져왔다.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 증진을 위한 발판을 놓는 수고를 장애계가 감당해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절로 익어가는 열매는 없다. 인고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질고와 형극의 땅에 푸른 숲을 기대하며 나무를 심어온 노력이 끊이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굵은 길을 곧게 펴고 언덕을 파내어 평지를 만들어 온 도전의 세월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현재가 있음을 안다.

별 좋은 가을 오후에 장기철 회장의 삶을 돌아보며...



▲1986년 12월27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장기철 회장.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1만여 명 참가...대구협회 우승

## 지장협,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매진



▲ 2016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지체장애인의 축제 '2016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전국 17

개시·도협회 회원 1만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대구광역시의회 류규하 의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대표,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대표 등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개회식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 유

공자에 대한 보전복지부 장관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장,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및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의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줄다리기, 좌식 배구, 게이트볼, 한궁, 휠체어육

상 400m 릴레이, 스탠딩 육상 400m 릴레이 등의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에 참여한 한 회원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전국 지체장애인이 모여 교류하고, 추억을 만드는 체육대회에 참여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종합우승은 대구협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충남협회, 3위는 경남협회에 돌아갔다. 응원상은 경북협회, 화합상은 전북협회, 모범상은 전남협회, 강원협회가 받았다. 이날은 해양경찰의장대, 대구동구합창단과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가 축하공연을 펼쳤고, 부대행사로 지체장애인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등 생활체육 체험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며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1인 1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3면에 계속)

## 장애인영화제, 11월 4일 개막

### 4일간 서울 롯데시네마 합정점에서 무료 상영

제17회 장애인영화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롯데시네마 합정점에서 열린다.

영화제 기간 해외초청, 국내초청, 관객초청, PDFF 경쟁, 장애인 미디어운동 등 5개 부문에서 총 24편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9월 24일 '영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식 포스터는 두 손이 사다리가 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제 사무국은 포스터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제각기 개성과 목표, 희망을 품은 존재"라면서 "장애



▲ 장애인영화제 포스터.

인 개개인은 별처럼 빛나고 있을지, 그리고 알고 보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의 홍보대사는 배우 한지민이 맡았다. 한지민은

홍보영상을 통해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장애인영화제를 앞두고 공식 SNS 계정([www.facebook.com/goodmoviepdf](http://www.facebook.com/goodmoviepdf))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홍보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자세한 상영 일정은 장애인영화제 홈페이지([www.pdf.or.kr](http://www.pd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영화제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가 공동주최한다.

## 버스터미널 5곳, BF 인증

### 교통약자, 시외버스 이용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이 'BF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BF 인증을 취득한 5곳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규 여객시설에 대한 BF 인증 실적은 증가했으나,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편의시설 설치

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요 이동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5개 시설에 대한 BF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공사비의 50%와 설계비를, 기초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분담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추진해 BF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



# 국정감사 장애인 생활개선 대책 촉구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줄음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지난 9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각종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10월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탈락하는 시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2016년 7월 1,628명(19%)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제도 이용률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이 부족해 복귀후생이 미흡하고, 수급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줄음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 제안

줄음쉼터에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은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도 졸리면 줄음쉼터에 가야하고 화장실도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없다"며 "졸린 데도 억지로 운전해서 휴게소까지 찾아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음쉼터 사망률은 17.1%로 교통사고 유형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줄음쉼터 사고는 380건이 발생했고, 이중 65명이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장면. ©국회방송

사망했다. 이에 줄음쉼터 이용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줄음쉼터 190개소 중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전체 54.2%인 103곳에 불과하다. 이중 장애인화장실은 6곳밖에 없다.

함 의원은 "애초 줄음쉼터에 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여닫기 편리한 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만드는 등 배려했으면 한 번에 완료했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장애인을 비롯해 줄음쉼터 이용객에 대한 편의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 매진 요구

최근 4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개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9월 3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개발원의 총 예산 중 정책연구와 관련된 사업비는 16억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개발원의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정책연구사업비는 예산 대비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다보니 설립 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4년간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적은 109건에 불과하며, 1년 평균 27건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이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을 예견해서 정책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정책·연구 사업비를 늘리고 정규직 전담연구인력을 확충해 신뢰성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요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 27개 중 7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상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중석 의원은 경인연이 제출한 '2014~2016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경인연 국책연구기관 중 25.9%에 해당하는 7개 기관이 의무구매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20개 기관의 실제구매율 평균은 5.19%인데,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의 실제구매율의 평균은 0.57%로,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구매 실적을 높이기 어렵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유사한 여건의 국책연구기관 사이에도 구매율이 크게 차이는 것은 실연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며, "경인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구매율 증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 시청각장애인 73% 재난 보도 시각지대

최근 지진과 폭우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청각장애인 73%는 장애인방송 수신기가 없어 재난보도 시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10

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36만여명 중 장애인방송 수신기를 지원한 비율은 27.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방송 수신기가 없는 73%의 시청각장애인은 재난방송을 볼 수 없다. 정부는 2000년부터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시각장애인 8만40명, 청각장애인 5만7778명에게 수신기를 제공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 예산 편성이 2014~2015년 30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28억5천800만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시청각장애인 4명 중 1명만 수신기를 지원받는 셈"이라며, "재난 약자가 긴급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재난방송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불기소율 42%...엄중 처벌해야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아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10월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총 351명이었으며, 최근 5년간 4382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불기소 처벌은 2012년 257명(37%),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였다.

최근 5년간 19세 미만 대상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불기소율은 30.1%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비해 10% 가까이 낮았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 지체장애 허성의 씨 전체대상

지장협, “사회와 소통할 기회 확대할 것”

장애문화예술인의 축제이자 독창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이 9월 30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주관하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198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장애문화예술인을 발굴해 온 대표 행사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번 예술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양화, 동양화, 서예, 일반사진, 휴대폰사진 등 5개 부문에 걸쳐 사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서예 부문 허성의(52세, 남) 씨가 수상했다. 허성의 씨는 “마려당여(갈고 닦는 수양은 마치 백번을 담금질한 금같이 하여



▲예술제 입상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라는 제목의 서예작품을 출품했다.

허 씨는 “역사가 깊은 예술제의 전체대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작품의 의미처럼 앞으로 더욱 연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양화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

부부장관상)은 강주영(19세, 남), 동양화 부문 대상(이하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이명상(45세, 남), 서예 부문 대상은 김정호(71세, 남), 사진 부문 대상은 장병철(55세, 남) 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밖에 각 부문 최우수상(보건

복지부장관상)에 4명, 우수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에 6명,佳作(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에 25명, 입선(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에 25명이 선정됐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문화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 적박했던 시절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던 지장협의 30년 역사와 함께해온 대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인의 등용문이 되고, 또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장협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작품은 10월 14~17일까지 대학로 이룸센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2면에 계속)

##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투쟁 돌입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 천막농성



▲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가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은 시급 9,000원으로 동결하자 장애인들이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9월 22일 국회 앞에서 총집회를 개최하며 내년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추진연대는 예산 동결뿐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5% 삭감,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기준으로 수급자 6만1천명, 지원인력 5만4천명, 제공

기관 9백20여 곳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력 간의 매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은 삭감한 반면,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의 예산은 1백80억원 증액했다. 이는 과거의 시설 중심 장애인복지로 회귀하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추진연대는 활동지원 서비스 동결 예산안을 철회하고, 단가를 1만1천원으로 인상할 것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문제 해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국립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급

872개 중 30개 뿐...솔루션, 추가설치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10월7일 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에 39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초 사전예약 날이 되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관리소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 우선 예약 제도와 장애인의 객실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솔루션에 따르면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체 휴양림의 46.2%에 해당하는 18개소에는 여전히 장애인 이용객실이 없다. 객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용 주차장은 30개 객실 중 11개 객실에만 설치돼 있다. 객실 내부에는 실내 안전 손잡이 등 설비가 부족해 장애인이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사정에 따라 산책로에 난간을 조성했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휴양림은 6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곳의 객실 설치 △기존 객실들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 보강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산책로 확보 등 추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요구했다.

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휴양림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워크숍

# 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교육

## 지장협,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 중요”



▲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워크숍'에 참가한 실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지장협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81명이 참석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가인 석세희 강사가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제이드 컨설팅의 고연경 강사가 성희롱 예방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실무자는 “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인권에 기반을 둔 시설운영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은 실무자들에게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일터인 동시에 이용고객에게는 행복한 복지시설을 만들어가자”고 제언했다.

또,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지장협 시설지원부 나광석 부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별 정보를 준비해 실무자 역량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인권유린 희망원, 뒤늦은 사과 대책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총연맹)가 국회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이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박광수 원장은 10월 13일 희망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발언과 함께 그간의 잘못에 책임질 것을 밝혔다. 희망원 측은 이에 앞서 11일 시설장 4명과 중간관리자 16명을 포함한 총 24명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를 비롯

한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문을 열고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다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수탁,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진 이곳은 현재 노숙인과 장애인 등 약 1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시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됐으며, 매년 90여억원의 예산을 대구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최근 2년 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인 12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성폭행과 급식비리,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결성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철폐 대책위원회는 희망원의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운영권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이 사건을 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맹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에 분노하며, “문제의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근로환경 개선

### 안성시지체장애인공동작업장 등 기능보강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2016 기능보강사업 공모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을 선정해 지원했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의 장비를 보강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장협에 따르면 올해 기능보강사업에는 직업재활시설 10곳이 신청했다. 이들 중 기능보강의 목적이 뚜렷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안성시지체장애인공동작업장,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선정했다.

지장협은 각각 작업능력 향상과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성시지체장애인공동작업장에는 높낮이 작업 테이블 및 의자를,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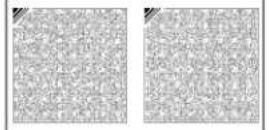


▲안성시지체장애인공동작업장에 지원한 높낮이 작업 테이블 및 의자.

는 공조정비 설치공사를,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지붕 보수공사를 지원했다.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 지장협 관계자는 “기능보강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환경 속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2016년 전국장애인 경영자 연수 참가자 모집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규모를 확대

### 일시

• 2016.10. 27(목) 13:00 ~ 10. 28(금) 13:00

### 장소

• 비채텔리스(충남 보령시 동천읍 독산리)

### 비용

• 1인당 100,000원(1인당 실만원)

### 정원

• 선착순 100명(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 일정

▶ 1일자(10.27 목요일)

• 참가자집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방안 모색

▶ 2일자(10.28 금요일)

• 직업재활시설의 현안 및 발전방향 / 수요증수여 / 폐회식

### 문의

• 02-2289-4303(시설지원부 함인옥)

###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참가신청서  
접수  
(이메일접수)

접수확인

※ 참가신청서는 <http://www.kapdd.or.kr/> 협회자료 참고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kapdd303@naver.com)로 회신



# 충남지장협, '리더의 역할' 교육

##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어져



▲충남지장협이 '충청남도 지체장애인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지도자(협회장 이진희, 이하 충남지장협)가 주최한 '충청남도 지체장애인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이 10월 29~30일 무창포 비제펠리스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이진희 협회장이 '조직과 장애인분야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진희 협회장은 "리더는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남을 배려하는 겸양의 자세를 갖고 활동해 달라"고 시·군지회장 및 수탁시설장에게 전했다.

이어서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전희재 소장은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전희재 소장은 성폭력의 개념

부터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특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대처방법,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교육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충남지장협은 충청남도장애인민원상담센터 무료 상담전화(1588-0420)를 홍보하며, 장애인 인권증진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 “체험 통해 장애인 이해해요”

### 문경시지회, 동로초등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들이 목발을 짚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문경시지회(지회장 박흥진, 이하 문경시지회)가 동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체험을 실시했다.

교육은 9월 28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2회 진행됐다. 강사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지회장 박흥진)가 맡았고, '차이와 차별'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박 회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릴 때 받을수록 편견을 없애고,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체험활동으로는 눈 가리고 콩 옮기기, 한쪽 팔을 붕대로

감고 다른 손으로 바지 갈아입기, 휠체어나 목발로 경사로 오르내리기 등을 실시했다. 체험 후 학생들은 "걸어가다 툇 때문에 넘어질 뻔 했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을 의뢰한 담당교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시지회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연구지역 장애인을 위해 후원해왔다.

연구지역 측은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지원이 끊겼다"며 "한 상황에 받은 후원이라 더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 11년간 나눈 따뜻한 정

### 한국마사회 연수점, 지역 장애인에 라면 후원

한국마사회 연수점은 추석을 맞아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지도자(연구지회(지회장 정인식,

이하 연구지회)에 라면 300박스를 후원했다.

한국마사회 연수점은 11년간

## 김천시지회, 정동진에서 문화체험 130여명 모여 지회 발전 모색



▲'재향증진대회 및 워크숍'에 참여한 김천시지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정동진 일원에서 '2016년도 재향증진대회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회 임직원과 회원 등 130여명은 바다를 관광하고, 정선 레일바이크에 올랐다. 회원들은 철길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며 일상의 피로를 해소했다. 그 후 일행은 시간 박물관에서 시간의 원리를 이해하며, 저마다의 추억을 회상했다. 다음으로 썬 크루

즈에 올라 전망대와 조각공원 등을 지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박선하 지회장이 '김천시지회 발전방향 및 만성질환과 건강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특강에서 "푸른 하늘아래 바닷바람을 맞으며, 회원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하자"고 말했다.

## 해도공원과 형산강변, 깨끗하게 탈바꿈

### 포항시지회, 장애인일자리 '합동환경정비' 긍정적 평가



▲합동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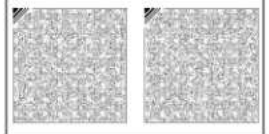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포항시지회)는 9월 30일, 2016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합동환경정비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나누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참여한 장애인들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 담당하는 포항시장장애인취업지원센터 이수정 대리는 "지난 7개월간 소임을 다해준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편의센터, 부정청탁 금지 서약

## 임직원 100여명 공정한 업무수행 앞장



▲경기도편의센터가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경기도편의센터)는 10월 1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특별교육과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동참하는 의미로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편의센터는 상세한 법률 교육 후 준비한 서약식을 시

작했다. 김기호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서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기호 센터장은 “우리센터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관련법이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와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편의센터는 향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준수에 노력할 계획이다.

#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에 보장구 지원

## 김포시지회, 휠체어 50대, 목발 100조 전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가 키르기스스탄에 보장구를 지원한다.

김포시지회는 지난 10월 10일 김포상공회의소 광장에서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걸어오’라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 보장구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보장구 지원을 추진한 이경규 지회장은 “보장구 지원 등 후원 활동은 장애인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장애인단체가 솔선수범해 나누는 모습을



▲김포시지회가 키르기스스탄에 보장구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보며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고 격려했다.

이번에 김포시지회가 후원하는 보장구는 휠체어 50대, 목발 100개 등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이다.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구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동작구지회, 일일장애체험

## “장애 편견 개선에 기여”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지회장 이용호)는 10월 5일 중앙대학교에서 제6회 동작구 일일장애체험교육을 개최했다.

“너를 보여주고 나를 알려주는 희망나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며, 부정적인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체험은 안대로 눈을 가린 후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데 ‘내 인생의 자화상’, 음료수 맞추기 등 시각장애체험, 저주파치료를 팔에 장착하고 볼록 쌍기와 같은 편마비 장애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영상과 사진전시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에



▲안대를 쓰고 점자볼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필요성을 알렸다.

# 대구지하철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 대구지장협, 역사 4곳에 기증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김창환 협회장, 대구지장협)는 9월 8일 대구도시철도 서편연장 구간 개통에 맞춰 전동휠체어 급

속충전기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급속충전기는 4대이며, 2시간 정도 충전하면 40km 이상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장협은 2013년에 1호선 상인역, 중앙로역, 대구역, 2호선 계명대역, 성서산업단지역, 환승역인 반월당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시작했다. 이어서 2015년에 대구도시철도공

사와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1호선 명덕역, 3호선 명덕역, 2호선 신남역, 3호선 신남역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은 “앞으로 도시철도역사 외에도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체육활동으로 장애인 화합

## 제주시 장애인 500명, 수련대회 참여

지난 10월 8일 제주시 구좌읍 체육관에서 ‘2016 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수련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손복남)에서 주최, 주관하고 제주시에서 후원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이 함께 플라잉디스크, 볼링, 농구,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했다.

### 인사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태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박병규



# 장애인복지관 임직원 화합 다져

##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이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화합을 다졌다.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는 10월 15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임직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인 이사장배 제8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산하 복지관의 임직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지역 장애인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대회 종목은 OX퀴즈, 태극극, 립보, 깃발뽑기, 복불복 레이스 등을 준비해 직원들이 경쟁보다는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블루팀(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복지관)이 차지했으며, 특별상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됐다. 올해 대회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내년 대회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할 예정이다.



지장협 산하 장애인복지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의 장

### 실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교류 중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23~24일 이틀에 걸쳐 '2016년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리솜오션캐슬에서 진행한 이번 워크숍에는 산하 20개 직업재활시설 96명의 종사자와 법인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가 특강을 펼쳤다. 변 교수는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모두 마치고 점수비중이 가장 높은 D영역의 핵심내용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실무'의 평가위원을 담당한 바 있다. 변 교수는 특강에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활용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종사자들이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했다.

이어서 저녁에는 전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유익했

다"고 말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장애인복지 발전에 더욱 매진하자"고 격려했다.

## 달구벌복지관, 웃놀이대회 개최

### 저소득 재가장애인 명절 후원



▲달구벌복지관 이용자들이 웃놀이를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서준기)에서는 추석을 맞아 웃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8일 진행된 웃놀이 대회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가족 80명이 참여했다. 4명씩 20개 팀을 편성해 토너먼트 단판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 결과에 따라 1~4등까지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이어서 복지관은 12일, 저소득 독거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후원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으로 나물과 전, 반찬, 과일, 유과를 구매해 지원했다. 또,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 및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설렁, 밀가루, 참기름 등 25세트를 후원해 장애인의 명절 부양을 채워 주었다.

## 장애아동 가족캠프, '치유'의 자리

### 아산장북,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은 장애아동가족들과 에버랜드로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10월 1~2일 1박2일간 장애아동 6가정이 함께 했다. '편(Fun)한 Body

Talk'라는 이름의 이번 캠프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접목해 집단 놀이치료와 장애·비장애 형제자매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또, 가족들은 에버랜드를 관람하며 사진을 찍고, 동물과 꽃을 구경했으며, 공연도 관람했다.

이들날에는 레크리에이션과 활동지 작성을 통해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평소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가족과 소통하며 해소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진천장북, '나눔&모금 day'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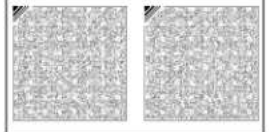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기금 마련 바자회

충북 진천에서 장애인복지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렸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10월 6일 한울컨벤션웨딩홀에서 제2회 장애인복지기금 마련 '나눔&모금 day' 바자회 및 일일호프 개최했다. 바자회에는 지역 주민 8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바자회에는 지역 업체들이 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을 후원해 기금마련을 도왔다. 바자회에서는 물품 판매뿐 아니라 목공예체험과 이월체험,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타로부스 등 부대행사를 펼쳐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지장협 장애인복지관장 한 자리에

## 장애인복지 발전, 공동 노력 다짐



▲지장협 산하 복지관의 관장들이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협의회장 정의철)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하 21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모두 참여했다. 정의철 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강 박래호 선생이

‘CEO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래호 선생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청렴한 CEO의 사례로 조선시대 청백리의 대표격인 ‘아곡 김수랑’의 삶을 소개했다. 이를 반영한 리더의 덕목으로 청렴과 올바른 인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장협의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김광환 회장은 “고스란히 장애인복지의 역사가 된 30년간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갖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성남장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대여 등 지원

### 보조기구서비스센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은 성남시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장북의 보조기구서비스센터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별로 상담, 수리, 대여, 세척,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현재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보행기, 실버카 외에도 다양한 이동보조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장애인뿐 아니라 보장구가 필요한 비장애인 주민에게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연장신청을 할 경우 심의 후 최장 1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세척 서비스의 경우 성남시 내 장애인 밀집지역(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 백련마을 등)의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해 연 4회 지원한다.

센터의 신춘식 보조공학사는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구가 있다면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기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성남시 거주 장애인은 신춘식 보조공학사(031-720-2870)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내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문경장북 다이어트 교실 호응

### 참여 청소년, 체지방 줄고 근육 늘어



▲다이어트 교실에 참여한 청소년이 로잉머신으로 운동하고 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에서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다이어트교실을 운영했다.

경북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한 이 사업은 발달장애학생 10명을 모집해 배드민턴과 로잉머신(실내조정) 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이어트는 물론 운동에 흥미를 붙이며 기초체력을 다졌다.

로잉머신 운동의 경우 처음에는 500m 완주도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2000m를 완주하며 단련된 모습을 보였다. 또, 운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체지방률은 평균 0.3kg 감소하고 근육량은 1.2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점점 힘이 세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목포장북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 250여명, 윷놀이 · 딱지치기 등



▲지역 장애인들이 목포장북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

목포 지역 장애인들이 추석을 맞아 전통놀이를 한마당을 펼쳤다.

지난 9월 13일 지역 장애인과 가족 250여명이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에 모여 윷놀이, 딱지치기, 부호, 신발던

지기 등의 놀이를 하며 화합을 다졌다.

전통놀이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송편만들기를 진행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했다.

## 충남남부장북 숲 건강교실, ‘가을애(愛) 힐링여행’

### 계족산 황톳길 걸으며 활력 찾아



▲숲 건강교실 참가자들이 계족산 황톳길을 걷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 이하 남부장북)은 10월 11일 지역 장애인과 계족산 장동산립육장에서 ‘숲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가을애(愛)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산에서 황톳길을 걸으며, 신체의 에너지를 촉진하고 삶의 활력을 찾자 기획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조용한 계족산에서 맨발에 닿는 황토의 촉감을 느끼며 산에 올랐다.

건강교실에 함께한 최모 씨는 “황톳길을 걸으며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숲 건강교실’은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공주시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에 네 번째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남부장북 문화지원팀(041-856-70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맛있는 나눔’ 쿠킹 클래스 시작

## 북부장복,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여성장애인들이 쿠킹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으며, 요리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지원센터(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는 10월 6일, 쿠킹 클래스 ‘맛있는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며, 다양한 반찬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지체 2급, 47세) 씨는 “요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학원비용이 부담스러워 배울 용기가 없었는데, 맛있는 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북부장복 측은 여성장애인이 직접 만든 반찬을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복지관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1년간 ‘맛있는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유니클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지관 측은 여성장애인의 성취감과 자신감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 유성장복,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 저소득 장애인 돕기...500명 참여



▲바자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유성장장애인지원종합복지관(관장 박병규, 이하 유성장복)이 장애인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9월 27일 복지관에서 열린 바자회에는 장애인 이용자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바자회는 먹을거리 판매와 아나바다 장터를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했으며, 부대행사로 건강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펼쳐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바자회는 유성구청, 한수원(주)중앙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국민은행 대전 고객상담유닛, (주)더리스, 상록꽃집, 유성구보건소, 노은1·2·3동 주민센터, 조이너스 유성점, 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모다아울렛에서 각종 물품을 후원했다. 또, 목동성당, 대한어머니회, 한국조폐공사, 유성구주부자원봉사단, 음악교실, 유성온천신협부녀회, 유장복부모회, 청소년하모니합창단 부모회, 노은2동봉사단, SK이노베이션, 스타부미유학원에서 자원봉사를 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유성장복은 이날 모인 기금을 저소득 장애인의 생필품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 홍성장복 가을운동회 개최

### 체육활동 통해 스트레스 해소

지난 9월 24일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천규, 이하 홍성장복)은 ‘추억속으로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복지관 이용자와 가족, 직원들이 모여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은 미니볼링, 색깔막대, 내일은 웃돌이, 점보스택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함께 했다.

이날 운동회에는 하광학 부군수, 김현수, 최선경 군의원 등 많은 내빈이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홍성군장애인후원회, 홍성군장애인체육회, 홍성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홍성군 주민복지과, 백제식품, 아산자원봉사센터, 매일유업 등이 운동회를 후원했다.

## 농협 경북지역센터, 영천장복에 라면 후원

###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에 전달할 것”



▲농협 경북지역센터가 영천장복에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경북지역센터(하나로유통)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복)에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했다.

농협 경북지역센터 측은 이만희 국회의원, 김수용 도의원과 함께 10월 4일 복지관을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

하며,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근 관장은 “농협 경북지역센터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발굴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장애인들, 설악산 대승령 등정

### 김천장복 이용자, 대한산악연맹과 아름다운 동행



▲김천장복 장애인들이 대한산악연맹 김천시지회 회원들과 설악산을 오르고 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 이용 장애인들이 대한산악연맹 김천시지회(회장 송영현)와 함께 설악산 대승령 정상에 올랐다.

9월 24~25일 1박 2일간의 등산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12명으로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일행은 24일 설악산 장수대 분소를 시작해 해발 1210m의 대승령 정상에 올랐다. 총 길이 2.7km의 탐방로 중

0.7km는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힘든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김천장복은 대한산악연맹 김천시지회와 함께 2013년부터 매년 등산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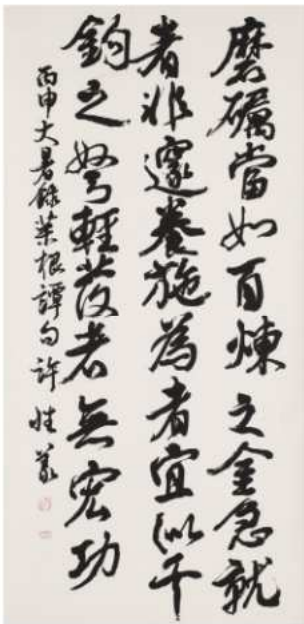
김천장복 측은 “등산이 장애인의 자립심과 도전정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도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16일 이음센터에서 열린 전시회.

## 제29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포토 리뷰



▲전체대상 수상작 허선의 씨의 미래당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전체대상 시상.



▲부문별대상 시상.



▲최우수상 시상.



▲최우수상 시상.



▲우수상 시상.



▲우수상 시상



▲9월 29일~10월 7일까지 이음센터 복도에서 열린 사본전시회.



▲KICKs의 모던태권도 축하공연.



# 2016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현장스케치



▲대구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지체장애인 선수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김부겸 국회의원의 축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격려 방문.



▲가수단 입장.



▲장애인 복지발전 유공자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유공자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표창 수여.



▲작사배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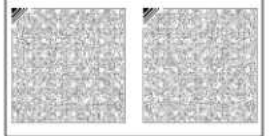


▲휠체어육상 계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



▲우승을 차지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보조기기법 시행령 보완 필요”

## 장애인 경제적 부담 해결 방안 절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장총은 지난 9월 29일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을 도출을 위해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문희 한국장총 사무차장이 발제를, 송병섭 대구대 교수,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강인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섭 사



▲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발표자와 토론자들.

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문희 차장은 먼저 “각종 보고서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보조기기법 제8조의 보조기기 교부 항목은 현재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부사업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조기기에 관한 기본법이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융자금 제공 및 기부금을 활용한 보조기기 지급 방안 마련 △저가의 보조기기 제품 생산 방안 마련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생산 유통과정 참여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 차장은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제공의 효율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 차장은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증대에 불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다수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구대 송병섭 교수는 전달체계와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교수는 “중앙과 지역센터 간 관계설정 및 업무협조 등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제시해야 하나 입법예고안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즉 당사자들과 대면하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와 상호협력 및 보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강인하 센터장은 보조기기 관련 기본법의 성격을 담보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강 센터장은 보조기기법 대상으로 명시된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를 넘어 직업 관련 장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한 대상, 특수교육 대상자 및 산재근로자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보조기기 관련 11개 주요 법률과 5개 관련 법률에 의한 대상자도 모두 보조기기법상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변 형태로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임동민 사무관은 “초기모델은 조금 허술하다”며 “그래서 앞으로 장애당사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피력했다. 또, 임 사무관은 “지금은 하위법령 제정이 선행결과”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하위법령 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장애인 스마트 비즈쿠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자세유지 보조기기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쿠션을 성형, 사용자가 장시간 편한 자세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분들께 스마트 비즈쿠션을 추천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사무직 장애인 근로자  
경증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 학생  
자세유지가 어려운 중, 경증 장애인

문의전화: 02-3477-3006,7

보조공학기기 및 기능성 게임 개발 전문  
**LPKS** | 주 | 엘피케이에스  
Learning Product & Kit System

137-829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길 13  
Tel: 02-3477-3006~7, Fax: 02-3477-3050  
E-mail: lps2007@hanmail.net / www.lpk.co.kr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 장고협,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기대”

6개 부문, 68명 수상...꿈꾸는 사람들의 축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항현)는 9월8일, 약 500여 명의 수상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이번 시상식은 한정에 국회의원이 명예대회장을 맡았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6개 부문(문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미술, 광고영상/스토리보드)에서 금, 은, 동상 각 1편과 가작 5편, 입선 5편 등 총 68편의 입상자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문문 부문 금상 수상자인 이병언 씨에게는 국회의장상을, 사진,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술, 광고영상/스토리보드 부문 금상 수상자인 신웅식, 여정후, 서정화 외 2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컴퓨터그래픽

부문에서는 김영수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산문 부문 금상은 김미정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서 2부 행사로 전국장애인 근로자경연대회가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15명(팀)이 참가해 개성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경연대회에는 트로트 가수 조승규와 양양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쳤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입상자들의 작품을 전시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식 카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장고협 조항현 회장은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이제는 영세한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대기업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장애인단체 및 시설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리우패럴림픽 12일간의 열전 마무리

한국, 11개 종목 81명 출전...메달 35개 획득



▲리우패럴림픽 휠체어마라톤에서 한국의 김규대가 역주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패럴림픽이 9월18일, 12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리우패럴림픽은 160개국에서 4천4백6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22개 종목에서 총 528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은 사격에서 나왔다. 8일 오후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경기에 출전한 김수완은 181.7점을 쏴 동메달을 안겼다.

대회 첫 금메달은 수영의 조기성이 획득했다. 같은 날 저녁 S4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전에 진

출한 조기성은 1분 23.36초 기록으로, 중국의 진즈펑을 2.69초 차로 가볍게 제치고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두 번째 금메달도 8일 저녁 수영에서 나왔다. S14 남자 배영 100m 결승전에 진출한 이인국은 59.82초로 대회신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어서 10일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이주희, 남자 유도 81kg급에서 이정민이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1일에는 남자 유도 100kg급에서 최광근이 금메달을,

12일에는 여자 탁구 단식에서 서수연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한국 대표단은 보치아, 양궁, 사이클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우수한 성적을 냈다.

특히 리우패럴림픽 마지막 날인 18일 김규대가 휠체어마라톤에서 한국 최초로 메달을 획득해 박수를 받았다. 김규대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육상 남자 마라톤 T54 경기에서 1시간 30분 8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규대는 먼저 열린 8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회 동메달 2개로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3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다.

폐막식에서는 최우수 선수상으로 여겨지는 ‘황연대 성취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상은 한국 최초의 장애인 여의사인 황연대 여사가 1988년 ‘오늘의 여성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전액 기부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난민대표팀의 장애인 수영선수 이브라임 알 후세인(27)과 미국 장애인 여자 육상선수 타티아

## 제10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

11월 5일, 의정부장북 일원에서 열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이 주최하는 제10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5일(토)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종목은 모두 10개 부문이다. 레이싱부, 핸드사이클부, 생활용휠체어청년부, 생활용휠체어장년부, 지적장애인부, 장애인통합부, 어울림비경쟁부, 비장애인청소년고등부(이상 5km), 시각장애인부, 비장애인성인부(이상 10km)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1,2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밖에 초정경기로 방송인 현영과 지역 인사들이 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5km를 달릴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춘희 관장은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라며 “장애인 체육대회의 좋은 모델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장애인체육회, 한국마사회(경부지사), (사)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가 후원한다.

나 맥패든(27)이 기념 메달을 받았다.

한편 사격, 양궁, 탁구, 육상 등 11개 종목에 81명이 출전한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

달 17개를 수확해 종합 20위에 올랐다. 총 메달 수 기준으로는 종합 11위(35개)다. 종합 1위는 금메달 107개(총 메달 수 239개)를 수확한 중국이 차지했다.



# ‘사이보그 올림픽’ 첫 개최

## 장애인 보조공학기술 열전

장애인을 위한 생체공학 기술 올림픽, ‘사이배슬론’이 10월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다.

‘사이배슬론’은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조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다.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cyborg)와 경기를 뜻하는 라틴어 애슬론(athlon)을 합성한 말로, 장애인과 최첨단 기계가 한 팀을 이뤄 경기한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패럴림픽과 비슷하지만, 사이배슬론은 첨단 보조 장치의 성능이 승부를 좌우한다. 대회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전기 자극 자전거 경주(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로봇 의수(Powered Arm Prosthesis Race), 로봇 의족(Powered Leg Prosthesis Race), 입는 로봇(Powered Exoskeleton Race), 기능성 휠체어(Powered Wheelchair Race) 등 총 6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25개국에서 74개



▲걸을 수 없는 척수 손상 선수가 외골격 로봇을 이용해 ‘입는 로봇 경기’를 하고 있다. ©사이배슬론 홈페이지

팀, 총 300여 명이 참가해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이 대회에 참가했다.

보철 팔을 개발해 참가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알도 파이살 교수는 “패럴림픽은 빨리

달리고, 빨리 해업치고, 높이 뛰는 기존 올림픽 종목을 옮겨 놓는 것이라면 사이배슬론은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상을 비슷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사이배슬론을 창설한 취리히

연방공과대의 로버트 리너 교수는 “지금까지의 기술은 아직 장애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휠체어나 외골격은 너무 부피가 크고, 의수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배슬론을 통해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수로 물건을 집고, 랍캣줄에 옷을 넣어 집게로 고정하는 등의 과제에 도전한 임페리얼 팀의 케

빈 예비전 씨는 “조금 느리지만, 사고 전에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김병욱(42) 씨가 입는 로봇인 ‘엑소레이스’ 종목에 출전했다. 김 씨는 입는 로봇 ‘워크 온’을 착용하고 대회에 출전했다. 아이언맨의 파워 슈트 같은 이것은 로봇 개발업체 SG메커트로닉스와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고경철 교수 연구팀,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서동욱 교수 연구팀이 함께 개발한 것이다. 한국 팀은 이 경기에서 독일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선수들은 로봇을 착용하고 앉기와 서기, 장애물 통과, 징검다리 건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과제에 도전했다. 전신마비 선수들은 머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전파를 해독해 스크린 위의 커서를 조종하는 ‘뇌-컴퓨터 접속’ 경기, 눈으로 전기 휠체어를 다루는 경기 등에 참여했다.

한편 다음 사이배슬론은 2년 뒤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초음파 사진’ 등장 태아 모습 정확히 재현...예비 산모 감동



▲시각장애인 임신부가 3D 초음파 사진을 만지고 있다. ©Inutero

벅속 아기를 직접 보고 싶었던 시각장애인 부모의 바람이 ‘3D 프린팅 기술’로 실현됐다.

최근 폴란드의 3D 프린터 전문 업체 ‘인 유테로 3D(In Utero 3D)’는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3D 초음파 사진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웨이팅 위아웃 바리어스(Waiting without barriers)’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태아를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3D 모형으로 제작해주는 것이다. 앞을

볼 수 없는 부모들은 촉감을 통해 자신의 태아를 그려볼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벅속 아기와 자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실제 비율과 크기를 모두 고려해 3D 초음파 사진을 제작한다. 이 사진은 변경이나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또 3D 초음파 사진의 원료를 무독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사용해 예비 산모가 직접 만져도 인체에 무해하게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시각장애인 임신부는 “지금까지 아기의 심장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며 “3D 프린터로 아기의 생김새를 만져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업체는 폴란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즈워티(약 288원)라는 저렴한 비용에 태아 피규어를 제작해 준다. 폴란드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3D 모델 데이터인 STL 파일 제작 서비스를 1유로(약 1,249원)에 제공하고 있다.

STL 파일 주문은 홈페이지([https://inutero3d.pl/?page\\_id=621&lang=en](https://inutero3d.pl/?page_id=621&lang=en))에서 할 수 있다. 초음파 사진의 VOL 파일이나 DCM 파일을 제출하면 4일 정도 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 출력 업체를 이용하면 태아의 피규어를 직접 만들 수 있다.

## 한쪽 손으로 방송하는 기상캐스터

### ‘BBC 노스웨스트 투나잇’ 진행



▲한쪽 손이 없는 기상캐스터 루시 마틴이 기상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B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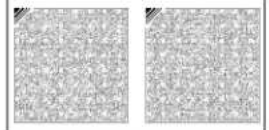
영국의 BBC 지역방송 ‘BBC 노스웨스트 투나잇’의 기상캐스터가 화제다.

기상캐스터 루시 마틴은 지난 5월부터 영국의 기상 정보를 전하고 있다. 그녀가 다른 캐스터들과 조금 다른 점은 오른쪽 팔꿈치 이하의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진 점이 다. 그녀는 한 손으로 리모

컨을 누르며 능숙하게 날씨를 안내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기상캐스터다”(트위터 아이디 froggy), “무시 같이 재능을 발휘하는 장애인을 TV에서 더 많이 보고 싶다”(유튜브 아이디 Philip Gardner)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실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김원식 대리



▲사용승인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화단을 설치함.

## 편의시설 설치에 이어 유지·관리까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 2016. 3.28.)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편의시설법」 제8조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역시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 방법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2016년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편의시설 사용승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언뜻 보기엔 두 조사가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개념의 조사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병원 이용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 사용승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그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 중 특정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조사로 2014~2015년도에 기 사용승인된 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하는 것은 점형블록을 제거하거나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을 놓는 등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화단을 설치하는가 하면,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의 폭이 1.4미터로 넓은 것을 악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화장실을 반으로 나누어 두 개로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처음부터 사용승인만 받으면 철거할 생각으로 경사로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및 대리석을 설치한 후 나중에 비닐 채 걷어내는 사례도 있다. 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바닥에 배관설비도 없이 변기만 올려놓고 나중에 변기를 들어내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암채족도 있었다.

이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저 사용승인만 받으면 끝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급변에 실시되는 조사는 사용승인 이후에 철거한 시설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사용승인 이후에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최초 사용승인을 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형블록이 파손되거나 화장실 손잡이 등이 떨어지는 등 훼손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이에 이번 조사에는 이런 사항들까지 파악하여 사용승인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꾸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통해 적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앞선 암채족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건물이 법까지 어겨지며 사람의 출입을 거부한다면 과연 그 건물이 존재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때,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기를 염원해 본다.



▲사용승인 이후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을 반으로 나누어 두 개로 사용함.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정하여 그 용도의 시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보건소 등 총 572개소를 선정하여 실태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2,000개소의 시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사용승인 당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사용승인 시에는 적절하게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히 발생



▲사용승인만 받고 철거하려고 화장실에 배관설비를 하지 않고 변기만 올려놓음.



#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막 내려

## 바리스타 등 3개 직종 추가...354명 참가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1~2전시장 및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워드프로세서 등 총 38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354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메카트

로닉스, 바리스타 등 3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홍보관, 네일아트 등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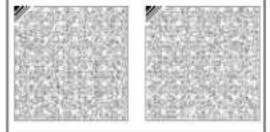
대회 중에는 장애인의 취업 기

회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채용박람회'가 함께 열렸다. 박람회에는 '무학위드' 등 40여개 구인 업체와 구직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1회 대회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내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청각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개관

### 자막과 수화지원 등 훈련 환경 갖춰

국내 첫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시설이 들어섰다.

지난 9월 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내에 개관한 청각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에 모두

21명이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입소 대기자도 7명에 달할 정도로 개관 초기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청각장애인 훈련센터는 자막과 수화지원, 시각 위주 학습자료, 충분한 밝기가 고려된

환경, 시야를 가리지 않는 좌석배치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 환경을 갖췄다. 기계 직종과 전자 직종 2개 훈련분야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단어 위주의 의사소통이나 활용 가능한 수화 어휘 수 제한 등으로 그동안 교육 환경에 제약이 있어 별도의 훈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개관한 청각

장애인 훈련센터가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훈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1. 지장협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상곡인권상 시상,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은 언제인가?
2. 10월 7일 열린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둔 협회는?
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 독자의견

여성장애인 일자리 소개 기사가 좋았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이상희

상담면에 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유용하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 김주용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 주소와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상곡인권상  
10월 7일

### 당첨자

서울 종로구 이상희  
충북 청주시 김주용  
경남 거제시 양정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작업장  
가브리엘 작업장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원하시는 문구/이미지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밀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거장은 장애인성공을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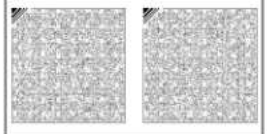
가브리엘 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 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 천연비누 4구 비누팩(7종세트)

♡문의♡

Tel. 02-951-9707 Fax. 02-951-9708  
서울시 노원구 한남비치로 24라길 04-13  
http://www.gabrielcenter.or.kr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상황별 복지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발간한 『장애등급별 장애인 복지혜택』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자세한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1. 저소득층 장애인

## ▶ 장애인 연금 (1~2급, 3급 중복장애)

구분	세부 내용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 3 +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가 있는 자 ■ 본인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지원 금액	(매월, 단위 : 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28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284,0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8~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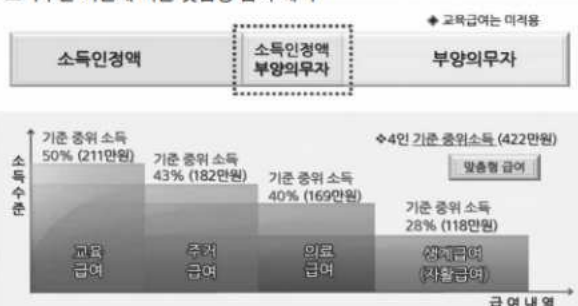
## ▶ 장애 수당

구분	세부 내용		
경증장애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3 ~ 6급 등록 장애인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 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 소득 59%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금액		
	구분	금액 (1인당 월)	
	중증	기초(생계, 의료)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15만원
		시설	7만원
경증	기초 및 차상위	10만원	
	보장시설	2만원	

## ▶ 비용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li> <li>■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외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li> </ul> </li> <li>■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차상위 14%, 일괄차 5%, 입원 10% 등) 전액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li> </ul> </li> </ul>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구분	세부내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장애인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및 지체성 장애 : 4만원</li> <li>■ 기타 장애 : 1만 5천원</li> <li>■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li> </ul>	
장애검사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또는 활동지원 신청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li> <li>■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li> </ul>	
	지원 내용	기초	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차상위	소요비용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수준 기준에 따른 맞춤형 급여 혜택



## ▶ 기타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언어발달 지원	구분	세부내용
	대상	■연령 기준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지체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매월 16만원 ~ 22만원 언어 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 지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품목	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 심장장애인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아동변기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지체, 뇌병변장애인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시계, 핸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2. 아동 장애인

## ▶ 보육 지원

구분	구분	세부 내용
보육료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0~12세 장애아동</li> <li>■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만 5세 미만만 해당)</li> <li>■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세 ~ 만 8세까지)</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반 : 월 40만 6천원 / 방과 후 : 월 20만 3천원</li> <li>■ 만 3~5세 누리 장애보육 : 월 42만원</li> </ul>
양육 수당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유치원, 중립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만 0~5세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자</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6개월 미만 : 월 20만원</li> <li>■ 36~84개월 미만 : 월 10만원</li> </ul>
양육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1~3급 중증장애 등록 아동</li> <li>■ 소득 기준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li> <li>■ 아동의 가정 또는 돌봄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li> </ul>

## ▶ 재활 서비스

구분	구분	세부 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지체, 언어, 청각, 시각장애 등록된 아동 (단 6세 미만의 아동은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li> <li>■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4만원 ~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li> <li>■ 언어치료, 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 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li> </ul>

## 3. 여성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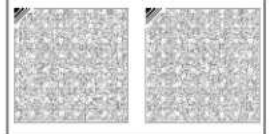
## ▶ 비용 지원

구분	구분	세부 내용
교육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여성 장애인</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력, 보건 및 가족 등</li> </ul>
출산비용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 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백만원 지원</li> </ul>

## ▶ 기타 서비스

구분	구분	세부 내용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 관리, 자녀 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li> </ul>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허두행 대리

# 1인 미디어 속 장애인 비하, 이대로 관철은가?

## 장애인 비하, 가벼운 처벌 악순환

인터넷의 발전으로 방송 매체는 TV보다 인터넷 방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인터넷 1인 방송 BJ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장애인인권침해방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인 방송 매체인 아프리카TV 프로그램에서 상반기에만 11건의 장애인 비하발언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방송과 BJ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해당 BJ는 방송정지, 이용정지 처분을 받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해당 플랫폼에서만 제재이고, 방송해지거나 아니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BJ는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간단히 다른 매체를 통해 방송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경우 사과 기자회견과 가벼운 방송정지 처벌, 그리고 방송이 재개됨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 개인방송은 방송법의 시각 지대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벽이 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서 규

정한 방송에서 제외되며, 정보통신방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방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비하, 차별, 혐오, 모욕적 발언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가 권고 수준에 그친다. 권고는 말 그대로 시정하길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은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그 행위에 고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개인방송에서의 비하 행위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비하 발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발언과 행동이 비하에 해당하는지 규정짓기가 어렵다.

다섯째, 방대한 방송콘텐츠의 양에 비해 모니터링을 하는 인원이 미비하다. 2015년 10월에 기재된 한 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모니터링 요원은 5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 양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다.

여섯째, 장애인 비하에 대

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음란, 도박 등의 콘텐츠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식이 있어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그러나 장애인 비하는 대중의 관심이 부족하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제재 또한 미비하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찾는다. 더 나은 방송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질적 제재 기준 강화해야

첫째, 인터넷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한 기준 강화이다. 아프리카TV는 평균 동시 방송 수가 5천개에 달하고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50만명에 육박한다. 향후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상파의 영향력에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데 TV 방송과 달리 콘텐츠 윤리성, 접근성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 극적인 방송이 그대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장애인 비하 표현이 담긴 속담 사용과 같은 발언도 금지하도록 강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으로 인정하고, 인터넷방송사업체 역시 공중과 방송국의 지위를 준용하여 방송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예로 방송인이 음주운전이나 도박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전 방송사에서 출연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를 인터넷방송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좀 더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및 비하에 해

당하려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처벌하려면 차별행위에 악의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이라서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

행법에 규정된 모욕죄의 조문을 살펴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판례를 보면 6인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기 망할 놈 온다'고 표현한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방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모두 모욕죄로 인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희롱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성요건은 타 유사 법률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폐쇄적이다.

구성요건에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법의가 느껴진다. 그리고 대상의 특정에 관하여는 인터넷 BJ가 장애인의 비하 발언을 할 경우, 방송을 보는 대중들은 장애인 전체를 떠올리기 쉬우므로 '장애인'이란 대상에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인종차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악의적 의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성희롱 구성요건처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모멸감뿐 아니라, 제3자가 보았을 때 이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차별, 비하에 해당하도록 구성요건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은 시청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방송 심의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방송 심의 매뉴얼과 같은 가시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인방송 BJ들에게 제공한다면 무지로 인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방송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야 한다.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문제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방송을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모두 함께 방송 콘텐츠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가 장애인 차별, 비하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개선방안도 의식적인 변화가 없다면 제대로 적용하고 실현하기 힘들다. 성희롱, 성추행 문제도 과거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제도가 생긴 것처럼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방송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리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더 이상 적용 가능한 근거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 관리에만 맡길 수 없다. 적극적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제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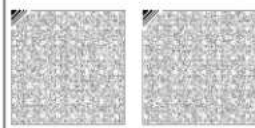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9호 2016년 10월 21일

회장·발행인/김경환 편집장/염민호 기자/오창세, 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16 전국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가화상 수기

## 당신은 나의 전부

— 강영택 · 이성래 부부



**이슬 머금은 백합처럼 수줍은 여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 그 여로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만남이 있다.

나와 아내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이 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성격을 가져 늘 부딪히고 투닥투닥하는 우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부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 아내, 나의 영원한 애기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43살이 되도록 먹고 살기 바빠 연애도 제대로 못 하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일하던 공장에서 물품을 나르다 2층 난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골반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 고생하다 겨우 친누나의 친구를 간병인으로 소개받았다.

간병해주는 누나는 평소 수기도 없고 말도 없는 나를 마치 친동생처럼 보살펴주었다. 누나는 종종 예쁘고 착한 26살짜리 조카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땡큐지!"하고 대답했지만, 능답이겠거니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누나는 정말 자신의 조카와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연애경험도 없고, 17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인데 말이다. 그 여자를 만나도 될지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누나에게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괜찮다고 밀어붙이는 통에 용기를 내 약속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활기가 넘치는 봄날 저녁에 아내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이슬을 머금은 백합처럼 수줍게 앉아 있었다.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무언가 찝찝했다. 어수룩해 보이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조심스레 누나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지적장애인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부모님과 누나들은 더 만나보라고 설득했다. 딱 한번만 더 만나보자는 생각에 두 번째 약속을 잡았다. 그녀와 마주앉아 지적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걷고, 사람 자체에 집중해 보았다. 맑고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쪽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그녀와 정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이 깊어지며 마침내 2001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 시각장애인으로 제2의 삶

우리는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신희

생활을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며 사랑했고, 알뜰하게 모아 집을 조금씩 넓혀갔다. 우리는 사랑의 결실로 아이 4명을 낳았다. 그러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 행복한 일상에 불행의 서막이 나타났다.

어느 날 나는 저릿한 손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다. 의사선생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말대로 증상이 악화되며 다니던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으로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걸까. 나는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때의 후유증으로 하루아침에 시각을 잃어버렸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온 것일까?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불안했고, 아내와 자식 걱정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니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내 모습을 말없이 보고 있을 아내와 자녀들이 떠올랐다. 난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순 없다고 마음먹고 일어섰다. 하늘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 수급비는 6명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입하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배웠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겪은 어려움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동료 활동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나도 어엿한 장애인 인력으로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당신은 나의 전부

우리 가족은 2015년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으로 남이섬 1박2일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카라반에 짐을 풀고, 아내와 팔짱을 낀 채 오붓하게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다른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행복해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얻은 나의 장애로 인해 한때 우리 가족은 불행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 가족은 그때를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촉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잘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4명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랐다. 착하고 든든한 첫째 아들 현철이, 말쑥 많고 질투쟁이 병철이, 요즘 사춘기라 예민하지만 계속 예뻐지고 있는 우리 딸 민정아, 개구쟁이 막둥이 은철이 모두 사랑스러운 우리 부부의 미래다.

우리 가족은 요즘 보기 힘든 6명 대 가족이다. 서로 부족함이 많지만 이를 채우고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힘을 보태며,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가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전부, 내 사랑, 영원한 나의 애기 이성래. 예쁜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지금도 예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 미소에 환하게 화답한다.

나이 많고 서툰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내조해 준 나의 아내, 다음 생에도 난 그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 장애계인사이드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서준기 관장



##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에 대한 우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 짓는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뒤 현재까지 기본 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몸매 등급을 부여해 낙인을 준다는 점과 의학적 장애등급만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등록 후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이 65.4%로 나온 바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니,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장애판정체계를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제로 개선하고, 기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등급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폐지'가 아닌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차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 25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애인 구강진료 등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범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리고 201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

하고, 2017년 상반기 법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1, 2차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장애등급 개편과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시범사업에는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등록을 심사한다. 1~3급까지를 중증, 4~6등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증과 경증의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서비스는 사실상 전무하다. 보건복지부가 신규서비스라고 주장하는 6가지 서비스 중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활동지원 추가 바우처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변경해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듯하다. 2차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6가지 서비스 중 대구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이용자 수가 대부분 목표 인원보다 훨씬 적다. 이중 주간활동서비스와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자가 한명도 없다고 하니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2차 시범사업의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추가예산 지급 없이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보조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낮에 학습, 취미, 직업,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들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기존 서비스를 변경해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활동보조 급여 외에 추가예산을 확보하

여 추가서비스로 선택하도록 해야만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경우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장애인에게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와 달리 야간에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원한다. 심야에 격일로 순회방문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다 보니 도리어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구 달서구지역 시범사업 담당자는 전국의 현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정말 우려스럽다. 향후 장애등급제 개편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O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BAN-B

##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은 2004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복사용자화장품을 생산·판매하여, 일반 경쟁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직업재활시설이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작업으로서 장애인 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직접 제조·생산·배송으로 가격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반비 제품 구매는 희망 나눔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에 창출에 사용됩니다.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반비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장터  
www.banbimall.com shop.greenproduct.go.kr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shopping.g2b.go.kr www.s2b.kr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우)242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아침빛길 145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호반이 85g A4

반비 찬한강 80g A4

두루마리 화장지

점보통

www.banbimall.com

TEL, 1899-2514 FAX, 1899-2573  
E-mail, ccs3526@hanmail.net  
주문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리더스토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 체육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즐기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장애인에게 역시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운동과 건강 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대한지

체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자신과 가족까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요즘 장애인 파크골프를 하면서 수많은 장애인이 여러 악조건에서도 나름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비장애인 못지않은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체육활동이 우리 장애인에게 주는 효과는 첫 번째

가 재활입니다. 장애로 인한 운동 부족을 말하면서 복부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마치 당연한 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체가 약한 장애인은 그에 맞는 운동으로 상체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활운동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운동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재활운동이죠.

두 번째는 체육활동을 통해 무기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가난과 무기력에 길들여졌듯이 그냥 체념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체육활동은 이러한 장애인

이 활력을 찾고, 경기를 통해 성취하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어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온종일 직장 업무나 혹은 자신의 일로 바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를 계기로 타성에 젖은 자신을 일깨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체육활동은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일상의 무기력에서 탈출하게 하는 묘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의 성취, 자신감, 자아존중감 등 목적인 바를 이루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특히 생동감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 움직이는 나를 발견하고, 또 다른 회의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운동은 곧 치료제이자 삶의 청량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시·군에 체육회를 구성하고, 제1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위 명석을 깔아 보았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종목에서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



지난달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약 400만 명이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 언론사 기자 및 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와 협회 임직원들은 대상이 된다. 먼저,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새보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사인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포함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필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언론사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라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협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동법에 의하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

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무수행사인”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금지규정의 적용범위와 그 소속기관장이 변경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무원은 직무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이지만,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협회가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본다

면, 금품 등 수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소속기관장은 우리협회의 회장이 되지만, 우리협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은 감독기관이거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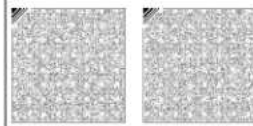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예시는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및 청원경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련법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협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

당할 수도 있다.

이법을 처음 접하며, 정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윤동이 라고 행거주고 작은 성의를 표현한 문화도 이제 주의해야 한다. 못 먹고 못 입던 시절 우리는 행거줄 것이 없었다. 그러다 잘살게 되면서 조금씩 커진 성의표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이제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면 정성껏 쓴 편지나 직접 만든 감동을 선물해야 한다.

30년을 정리하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열린 지장협과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이 되도록 우리협회 임직원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 쉽게 가려하기 보다는 원칙과 순리를 밝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와는 무관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달려온 30년 비상할 100년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National Conven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 일 시 : 2016. 11. 11(금) 11:00 ~
- 장 소 :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 후 원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